

RISK & TECH 뉴스 브리프

2022.02.09 (수)

	매체	제목
[RISK]		
1	서울경제	美 긴축에 확진자 폭증...쏟아지는 악재에 경기 심리 비관적
2	중앙일보	"주문량 30% 줄었는데 원가는 46% 급등"...물가·환율·공포에 기업 초비상
3	서울신문	금감원 "빅테크·카드사 결제 기능 달라"... 동일규제 원칙 뒤집나
4	한국경제	美, EU 이어 日과 철강관세 타결...한국기업 직격탄 우려
5	동아일보	전기차-온라인판매 앞세워...현대차, 12년만에 日 재진출
6	아시아투데이	산업은행, 뉴딜펀드 위탁운용사 접수에 50곳 지원
[TECH]		
1	헤럴드경제	"소름 끼칠 정도" 주름·솜털 이걸 진짜 사람? 역대급 출현
2	동아일보	NFT사업 뛰어드는 KT...웹소설·웹툰 콘텐츠 활용
3	머니투데이	"차 한잔 하세요"...AI가 스트레스 느끼고, 푸는 법도 알려준다

美 긴축에 확진자 폭증...쏟아지는 악재에 경기 심리 비관적

입력 2022-02-09 06:00:22 수정 2022.02.09 06:00:22 조지원 기자

뉴스듣기

가

시험편제 후 개편해 장기편차 100으로
100 넘으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 의미



한국은행 앞 /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뉴스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해 살펴본 결과 이달 들어 비관적인 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가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는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난 영향이다.

9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7일 뉴스심리

지수(NSI)는 97.55로 장기 평균(2015~2021년)인 100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뉴스심리지수가 100 미만이면 과거 평균보다 경제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뉴스심리지수는 지난달 20일 94.0로 크게 떨어졌다가 이후 100을 회복했으나 최근

다시 하락세를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모니터링 결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미국의 조기 긴축 우려가 강해지는데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이 오르는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난 영향”이라며 “글로벌 공급 차질이나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우려 등 각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NSI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은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경제 분야 뉴스 기사를 기반으로 기계학습(머신러닝) 방법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 수 차이를 계산해 지수화한 NSI를 만들었다. 지난해 시험공개 이후 학습 데이터를 추가 보완해 최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인공지능망 모형으로 감성분류모형을 업데이트했다.

한은은 특히 특정 시점의 뉴스심리지수를 긍정과 부정 문장 수 합계 대비 차이 비중으로 구하던 방식에서 동 비중을 표준화 구간(2005년~2021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 장기편차를 100, 표준편차를 10이 되도록 표준화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지수가 100보다 크면 뉴스기사에 나타난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한은은 뉴스심리지수가 소비자 심리지수나 선행종합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 1~2개월 선행하면서 높은 상관관계를 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부

조지원 기자 ✉ jw@sedaily.com

“주문량 30% 줄었는데 원가는 46% 급등”...물가·환율·공포에 기업 초비상

중앙일보 입력 2022.02.09 08:00

김경미 기자 이수정 기자 강기현 기자

구독



지난달 21일 부산항 감만부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부산에서 포장상자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이영우(76) 대표는 요즘 시름이 깊다. 코로나 19 이후 납품 물량은 30% 이상 줄었는데 골판지를 만드는 라이너(표면종이)와 골심지 가격은 최근 1년 새 46%나 올랐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판매량은 전월보다 10%가량 감소했다.

이 대표는 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제품 단가를 올리면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거래처마저 끊길까 봐 이익을 털어가며 팔고 있다”며 “인건비와 공장 가동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늘리고 싶지만 이자 부담이 커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물가와 금리,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산업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원유를 비롯해 철광석,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다락같이 오른 데다 달러화 가치가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며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금리까지 오름세를 보이며 기업의 자금조달 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

치솟는 원자재값, 기업은 울상

'3고 공포' 시달리는 산업계 시름

석유화학업계	원자재 가격 상승·제품 수요 감소
해운업계	원유 가격 상승·운임재조정 우려
철강업계	철광석 가격 상승·환율 상승
항공업계	원유 가격 상승·환율 상승
중소기업	원자재 가격 상승·금리 상승

The JoongAng

'3고 공포' 시달리는 산업계 시름.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91.32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향해 치솟자 LG화학·롯데케미칼 등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은 고민에 빠졌다. 주재료인 나프타(납사)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제품 판매 가격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공장 가동률을 낮추면서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크게 줄어든 여파다.

백영찬 KB증권 연구원은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한데다 미국, 중국 등은 설비 증설을 앞두고 있어 과잉생산이 우려된다"며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수익 개선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운업계도 수익성이 훼손될까 우려하고 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HMM은 2020년 연료비로 5000억원을 썼지만 지난해엔 유가 상승의 여파로 3분기까지 6814억원을 썼다. 이때까지 매출(9조3511억원)의 7% 이상을 연료비로 쓴 셈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그나마 운임이 높아 버티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운임이 재조정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유가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등하는 철광석 가격

단위: 톤당달러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The Joong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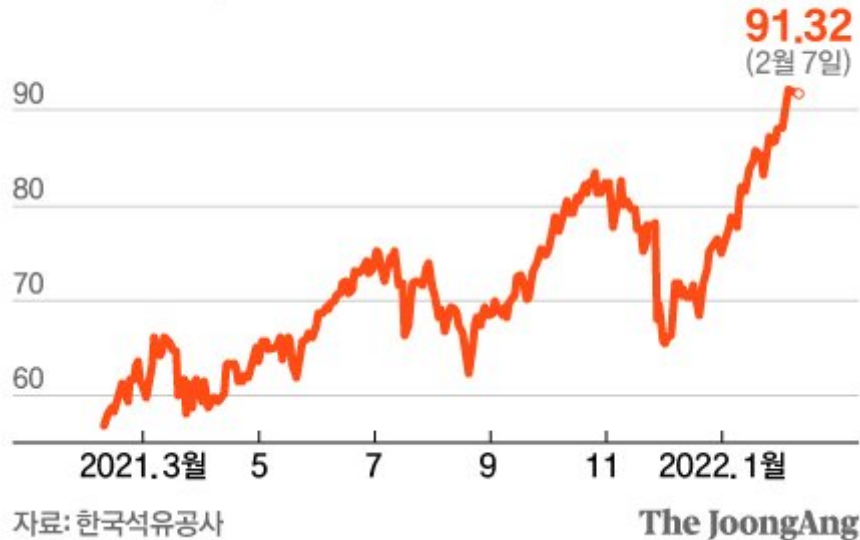
급등하는 철광석 가격.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철강 가격이 오르며 철강업체와 조선업계는 후판 가격을 놓고 힘겨루기 중이다. 선박 건조 비용의 약 20%는 후판 가격이 차지하는데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최근 급등해서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철광석 가격은 지난해 11월 t당 90달러대에서 지난달 140달러대로 치솟았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사들은 지난해 후판 가격 인상의 여파로 각각 1조원 안팎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1~2년 전 계약에 따라 배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오른 후판 가격을 반영할 수 없으니 계획보다 비싼 철강 제품을 사서 쓰는 것”이라며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값이 더 뛸 테니 매출과 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급등하는 국제유가

단위: 배럴 당 달러,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선물 가격



급등하는 국제유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유가와 환율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도 비상이다. 유류비는 국내 항공사의 전체 영업 비용 중 25% 안팎을 차지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항공유 가격은 지난 4일 기준 배럴당 111.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7% 상승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해 연료비로 1조8000억원을 썼는데 이는 전년(1조2474억원)보다 44.3% 늘어난 규모다.

ADVERTISEMENT

대한항공 관계자는 "연간 3000만 배럴의 항공유를 사용하는데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때마다 3000만 달러(약 360억원)가량 손해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유가 1달러 상승 시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는 76억원, 티웨이항공은 69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오르는 환율도 문제다. 항공기 리스비용과 항공유를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이다. 달러 가치 강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원화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을 오르내리는 중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대한항공의 순외화 부채는 약 49억 달러로 환율이 10원

오르면 약 490억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도 약 190억원의 손실이 생긴다.



지난해 10월 인천공항 항공유 저유시설과 활주로에 착륙하는 대한항공의 보잉 747-8 화물 항공기의 모습. [연합뉴스]

금리 부담에 중소기업 줄도산 우려

이에 더해 세계적으로 통화 긴축이 본격화하며 금리 부담까지 기업들을 짓누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3%포인트 오르면 기업 대출금리는 0.95%포인트, 이자비용은 13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은행 차입에 대한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아 재무건전성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0년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42만625개 가운데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못 미치는 기업)의 비중이 40.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지난달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리스크 점검 및 영향' 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그해 중소기업 중 자본잠식기업의 비율이 0.63%포인트 증가한다"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는 중소기업에 3중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3고 현상'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대출 연장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는 지원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환율·고비용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보니 고통스러운 1년을 보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에너지 수급 계획을 개편하고 공급망 관리를 위해 통상 외교를 강화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외적 상황이 엄중하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유력 대선후보들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치를 공언하고 있다"며 "상반기까지는 원자재·금리 부담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만큼 기업 경영환경에 우호적인 정책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월세방' 9월 계약만기 벌써 걱정... '3고 불황' 불 지르는 대선

오미크론에 중대재해법, 원자잿값까지...재계 '오·중·원 삼중고'

7년만에 최고치 찍은 국제 유가..."올해 배럴당 100달러 간다"

김경미·이수정·강기현 기자 gaem@joongang.co.kr

[단독] 금감원 “빅테크·카드사 결제 기능 달라”... 동일규제 원칙 뒤 집나



입력 : 2022-02-08 22:18 | 수정 : 2022-02-09 02:18

수수료 규제 차별 논란에 잠정 결론
“추가 조사 필요” 공식 발표는 안 해
“빅테크 편 들기” “카드사 눈치보기”

카드사 vs 빅테크, 결제 수수료 관련 입장차	
카드사	빅테크
“카드결제랑 기능 같은데 카드수수료만 규제, 형평성 맞지 않아”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최대 3배 높아 폭리”	
“발송·교환·반품의 판매 관리료 제공, 배송추적 등 카드사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카드수수료와 비슷한 결제형 수수료는 카드사와 큰 차이 없어”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와 빅테크 간 ‘규제 차별’ 논란이 거셌던 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양측의 서비스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그간 대외적으로 ‘카드사와 빅테크 간 동일 기능이면 동일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동일 규제를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 카드사 반발이 예상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11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사를 차례로 방문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드사 수수료율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실태조사 결과 카드사의 카드 결제와 빅테크의 간편 결제는 동일 기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잠정 결론 짓고 이 같은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 부문에서 카드사와 빅테크 간 서비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빅테크가 신용이 낮아 직접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없는 온라인 소상공인을 대신해 신용카드 가맹점 역할을 하는 등 카드사와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빅테크사는 기존처럼 카드사보다 수수료를 더 높게 받아도 된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위는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 금융위도 내부적으로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불투명한 결제 수수료 체계 등 개선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핀테크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반발을 의식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카드업계는 카드사 수수료율은 금융당국이 3년마다 책정하는 적격 수수료율에 따라 조정되는데 동일 기능임에도 빅테크 기업은 수수료율을 자율로 정할 수 있다며 불만을 표해 왔다. 한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인하에 이어 규제 차별 이슈마저 빅테크 편을 드는 모양새처럼 보일 수 있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다른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라고 인정해야 공평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카드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결제 수수료뿐 아니라 사업 영역 전반에서 동일 기능이 있을 땐 동일 잣대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카드사만 규제받는 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송수연 기자

美, EU 이어 日과 철강관세 타결...한국기업 직격탄 우려

정인설 기자 · 이지훈 기자
입력 2022.02.08 17:54 수정 2022.02.09 01:16 지면 A5

클린뷰

일반

年 125만t까지 무관세 적용
트럼프 정부 때 분쟁 일단락

한국, 협상 시작도 못해
줄어든 쿼터에 계속 발 묶여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과도 철강 관세 분쟁을 타결했다. EU와 일본이 앞으로 대미 철강 수출량을 회복할 경우 쿼터제에 묶여 있는 한국 기업엔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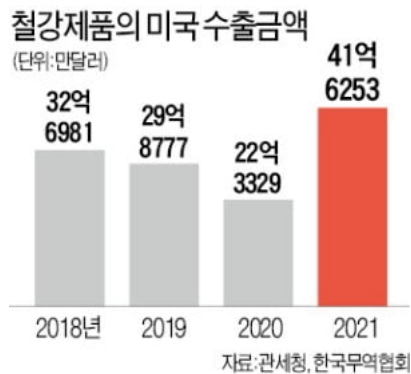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산 철강 제품에 대해 연 125만t까지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 현재의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 일본산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돼온 10%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철강 관세 분쟁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게 발단이 됐다. 미국은 2018년 3월 일본, EU,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EU는 주요 미국산 물품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다.

관련기사

나만 모를까봐 못 물어보는 미국 주식 용어 정리 [강영연의 뉴욕나우]
[포토] 바이든푸틴 '우크라이나 외교전'
日 가전시장은 여전히 '난공불락'



3년 넘게 이어져 오던 철강 관세 분쟁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단락됐다. 미국과 EU는 작년 10월 연간 330만t의 EU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고율 관세를 적용받지 않던 물량(100만t)을 감안할 때 EU는 고율 관세 부과 전 연평균 수출량(500만t)을 대부분 회복했다는 평가다. 일본이 이번 협상으로 무관세 할당을 받은 연 125만t은 2018~2019년 미국이 수입한 일본산 철강의 평균값이다. 이미 고율관세가 적용돼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이 줄어든 시점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EU보다는 다소 불리한 조건이다.

이에 한국 철강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EU·일본과 잇따라 고율관세를 폐지한 것은 한국 기업에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8년 당시 고율 관세 대신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이에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68만t으로 대폭 축소된 상태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철강 재협상을 촉구해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행정부, 정·재계, 싱크탱크를 상대로 철강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협상 개시도 하지 못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한국 정부 능력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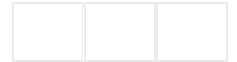
미국은 다음 철강 협상 상대로 영국을 지목했다. 향후에도 미국은 '전 세계 철강 공급이 과잉 상태'라는 이유 등을 내세워 한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이지훈 기자 surisuri@hankyung.com

전기차-온라인판매 앞세워...현대차, 12년 만에 日 재진출

이건혁기자

입력 2022-02-08 14:59 업데이트 2022-02-08 15:11



아이오닉5, 넥쏘 등 5월부터 판매, 일본 친환경차 정책 확대 맞춰 진입
일본 브랜드 94.6% 차지한 '수입차의 무덤'...성패 예측 어려워
장재훈 현대차 사장 "배우고 도전하겠다"



현대자동차가 친환경차를 앞세워 2009년 이후 만 12년 만에 일본 승용차 시장에 재진출한다. '수입차의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이지만 전기차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늦은 상황을 감안하면 현대차도 승산이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현대차는 8일 일본 현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5월부터 승용차 판매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대차는 2001년 일본 시장에 진출했으나 판매 부진

탓에 2009년 12월 승용차 판매를 중단했으며, 이후 버스 등 상용차 부문 영업만 이어 왔다. 현대차는 "일본 시장 철수 후 현대차는 디자인, 성능, 품질 등에서 진화해 왔다"며 "환경을 중시하는 일본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친환경차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일본에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 수소연료전기차 넥쏘 등 2종을 선보인다. 5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차량을 주문하며, 7월부터 소비자들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이오닉5는 현지에서 4개 모델로 판매되며, 가격은 479만 엔(약 5000만 원)부터 589만 엔(6140만 원)까지다. 수소연료전기차 넥쏘는 단일 모델로 판매되며 777만 엔(약 8100만 원)의 가격이 책정됐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일본 철수 후) 12년간 현대차는 다양한 형태로 고민을 계속해 왔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고객과 마주보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일본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판매 전략을 세웠다. 우선 차량 선택부터 시승, 견적, 결제, 배송까지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입 후에도 플랫폼을 활용해 차량의 정비나 부품 교환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지 차량공유 서비스 '애니카'와 협업해 아이오닉5 100대를 투입하며, 현대차를 구매한 소비자들도 공유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차에 특화된 체험 공간인 '현대 고객 경험 센터'를 올해 여름 요코하마를 시작으로 일본 주요 도시에 설치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일본법인 명칭도 현대모빌리티 재팬으로 변경하며, 단순 차량 판매를 넘어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현대차의 일본 시장 재진입은 일본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전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결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2020년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며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전체 등록 차량에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지난해 전기차 구매를 위한 보조금을 2배로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반면 일본 업체들은 닛산을 제외하고는 도요타, 혼다 등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도요타마저 아직까지 양산형 전기

차 모델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며, 지난해 12월에야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의 시기에 맞춰 현대차가 글로벌 인기 차종인 아이오닉5와 수소연료전기차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넥소를 들여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대차가 일본 시장에서 의미 있는 판매 실적을 올릴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일본 자동차 시장의 자국 브랜드 점유율은 지난해 94.6%에 이를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다. 수입차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마저 일본에서는 지난해 약 5만1000대를 파는 데 그쳤다. 여기에 하이브리드와 경차를 선호하는 일본 소비자들의 취향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낮은 선호도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일본 자동차 시장이 글로벌 3위 규모인 점과 친환경 차량으로 트렌드가 바뀌는 시점을 감안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다시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사장은 "일본 시장은 배워 나가야 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도전해야 하는 장소"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뉴딜펀드 위탁운용사 접수에 50곳 지원

기사승인 2022. 02. 08. 14:44



접수 마감...3.6대 1 경쟁률 기록
3월 중 14개 운용사 최종 선정

< 정책형 뉴딜펀드 '22년 1차 위탁운용사 접수결과 >

(단위 : 개, 억원)

구분	모집계획		지원현황		경쟁률(b : a)
	운용사 수(a)	조성규모	운용사 수(b)	지원규모	
블라인드 (기업투자)	소형	7,000	36	36,000	5.1 : 1
	중형	4,800	7	11,200	2.3 : 1
	대형	14,000	7	24,500	1.8 : 1
합 계	14	25,800	50	71,700	3.6 : 1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정책형 뉴딜펀드 1차 위탁운용사 모집에 50개 운용사가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총 14개 운용사 모집에 50곳이 지원하며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1차 모집 3.2대 1에 비해 높은 경쟁률이다. 이번 운용사 모집은 2022년 1차 뉴딜펀드 사업 2조8100억원 규모 중 블라인드펀드(기업투자)에 관한 것이다. 나머지 프로젝트펀드 2300억원은 운용사를 수시모집 중이다.

산업은행은 우선선정 부문인 탄소중립 분야에는 17개 운용사가 지원하는 등 뉴딜분야 전반에 대한 견조한 투자수요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분야의 정책적 지원 확대와 펀드규모 대형화, 투자품목 확대, 조기결성시 향후 선정우대, 재정의 후순위 보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책수요와 시장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뉴딜펀드 주관기관인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3월 중 14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연내 4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2년 조성목표 4조원 중 1차 사업에서 2조8100억원, 2차 사업에서 1조1900억원을 조성한다. 2차 모집공고에는 3월 중 선정될 예정인 민간 주관기관이 참여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작년과 동일하게 시장에서 디지털·그린 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여전히 높은 만큼, 원활한 민간투자자금 매칭을 통한 조속한 펀드결성이 기대된다"며 "뉴딜펀드 주관기관으로서 결성된 펀드와 위탁운용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정책형 뉴딜펀드는 2021년 말 기준 5조6000억원이 결성돼 조성목표 4조원 대비 약 40%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김윤주 기자 joo0416@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름 끼칠 정도” 주름·숨털 이건 진짜 사람? 역대급 출현!

2022.02.08 1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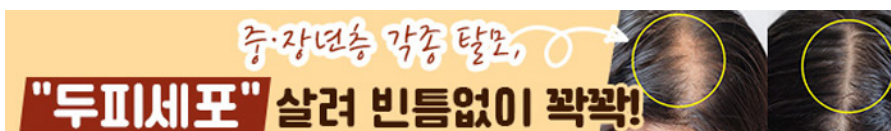
게임업체 크래프톤 가상인간 영상. [크래프톤]



크래프톤 가상인간 영상. [크래프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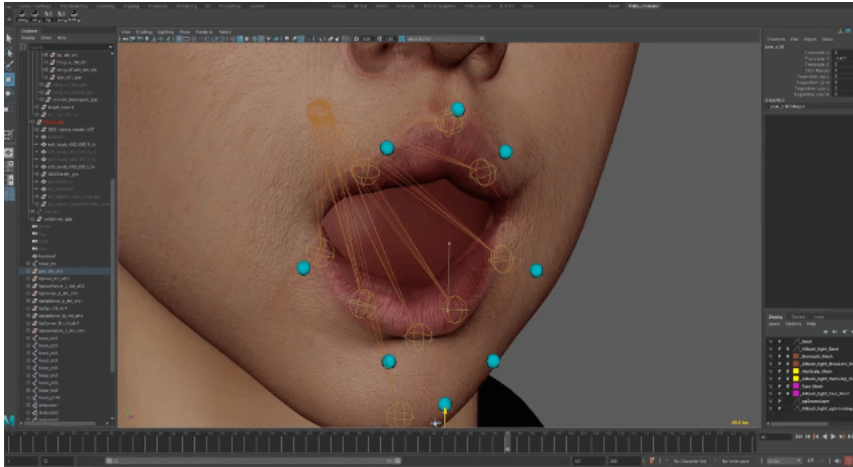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얼굴 주름에 비웃는 표정까지...진짜 사람인 줄 알았네!”

게임사 크래프톤이 ‘역대급’ 가상인간을 내놓는다. 주로 사진으로 등장하고, 웃는 표정이 묘하게 부자연스럽던 기존 가상인간과 다르다. 찡그릴 때 생기는 콧등 주름에 정교한 눈썹까지 하나하나 빚어냈다. 게임사, VFX(시각 특수 효과) 등 시각 그래픽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가상인간과 인간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8일 크래프톤은 자사 가상 인간(버추얼 휴먼)의 데모 영상을 공개했다. 다채로운 표정 연기는 물론 잔머리, 역동적인 신체 움직임까지 구현했다. 크래프톤의 인공지능과 언리얼 엔진의 3D 기반 하이퍼 리얼리즘 기술을 활용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하이퍼 리얼리즘 기술력으로는 구현해낼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라고 자신했다.

크래프톤의 가상인간은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과 인터랙티브 버추얼 월드를 구현하는 사업 과정에서 탄생했다. 리깅, 모션 캡처 등 기술이 적용됐다. 리깅(Rigging)은 3D 캐릭터의 뼈와 관절을 만들어 모션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최근 제작된 가상인간에 적용되는 ‘디지털 더블’과 다른 개념이다. 디지털 더블은 인간 모델의 얼굴 형태와 구체적인 표정이 나오는 구조를 딥러닝으로 분석해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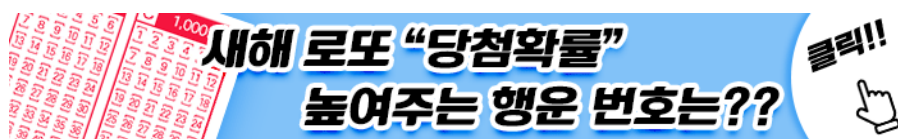
크래프톤이 리깅을 거쳐 디테일한 표정을 만들고 있다. [크래프톤 유튜브]



크래프톤의 가상 인간이 움직이는 모습. 모션캡처 기술이 적용됐다. [크래프톤 유튜브]

크래프톤의 가상인간의 ‘몸’ 또한 100% 가상이다. 사람의 몸에 센서를 부착해 움직임을 디지털 형태로 기록하는 ‘모션 캡처’ 기능을 사용했다. 반면, 싸이더스튜디오엑스의 ‘로지’, 펄스나인의 ‘이너티니’ 멤버들의 몸은 사람이다. 사람의 몸에 3D 가상 얼굴을 입힌 방식이다.

크래프톤 가상 인간의 무기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보이스 투 페이스(Voice to Face)’ 기능이다. 해당 기술은 가상 인간에게 ‘감정’을 더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짜증나”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으로 발화의 맥락을 분석해 적합한 표정이나 제스처를 짓게 한다. 크래프톤의 가상 인간 모델이 이용자의 ‘아바타’로 가상 세계에서 활용될 경우 상당한 활용이 기대된다. 크래프톤은 AI, 음성합성(TTS, STT) 등 혁신 제작 기술력을 개발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캐릭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스마일게이트의 가상인간 한유아 [스마일게이트]



싸이더스튜디오엑스의 가상인간 로지(왼쪽)와 온마인드가 개발한 가상인간 수아(오른쪽).

가상 인간은 최근 IT 업계의 최대 화두다. 스마일게이트는 VFX 업체 자이언트스텝과 손 잡고 게임 포커스온유리의 여주인공 ‘한유아’를 가상인간으로 구현했다. 넷마블의 자회사 넷마블에프엔씨는 지난해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최근 버추얼 인플루언서 ‘리나(RINA)’를 공개했다. SK스퀘어 또한 가상인간 ‘수아’ 개발사 온마인드에 80억원을 투자해 지분 40%를 인수했다.

한편, 크래프톤은 이달 들어 가상인간, NFT 등 신사업 진출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월 공모가(49만 8000원)의 절반 수준인 26만 4000원까지 하락했던 주가 또한 서서히 반등하고 있다. 28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주가가 15% 가까이 올랐다. 크래프톤은 8일 전일 대비 1.80%(5500원) 하락한 29만 9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NFT사업 뛰어드는 KT...웹소설·웹툰 콘텐츠 활용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2-08 13:50 업데이트 2022-02-08 13:51



KT가 웹소설·웹툰 등 보유 콘텐츠를 활용해 대체불가토큰(NFT)을 발행한다.

KT는 KT NFT Beta 서비스(가칭)를 오는 3월 출시할 예정이며, 서비스의 사전 알리를 SMS로 제공하기 위한 사전 알림 신청 페이지를 오픈한다고 8일 밝혔다.

KT는 서비스를 통해 KT그룹이 직접 제작 및 유통하는 콘텐츠의 NFT를 발행하고 콘텐츠와 관련된 추가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웹소설·웹툰 콘텐츠 기업인 스토리위즈의 콘텐츠를 활용한다. KT와 스토리위즈는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NFT 발행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KT는 블록체인 기반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NFT를 비롯해 지역화폐, DID(Decentralized Identifiers, 분산식별자) 시민증, 전자문서 보관 및 유통, BaaS(Blockchain as a Service)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KT는 지난달 17일 신한은행과 미래성장DX 사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NFT 기반 디지털자산 발행 및 거래 플랫폼 구축 공동사업, 전자문서 사업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 사업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BC카드, K Bank, KT alpha 등 KT그룹의 그룹사는 물론 블록체인 전문기업, 자산보유 기업 등과의 제휴협력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식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상무)는 "NFT가 디지털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키워드지만, 장기적인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선순환 생태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KT는 여러 자산을 보유한 KT그룹의 역량을 바탕으로 생태계 조성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차 한잔 하세요"...AI가 스트레스 느끼고, 푸는 법도 알려준다

머니투데이 — 김인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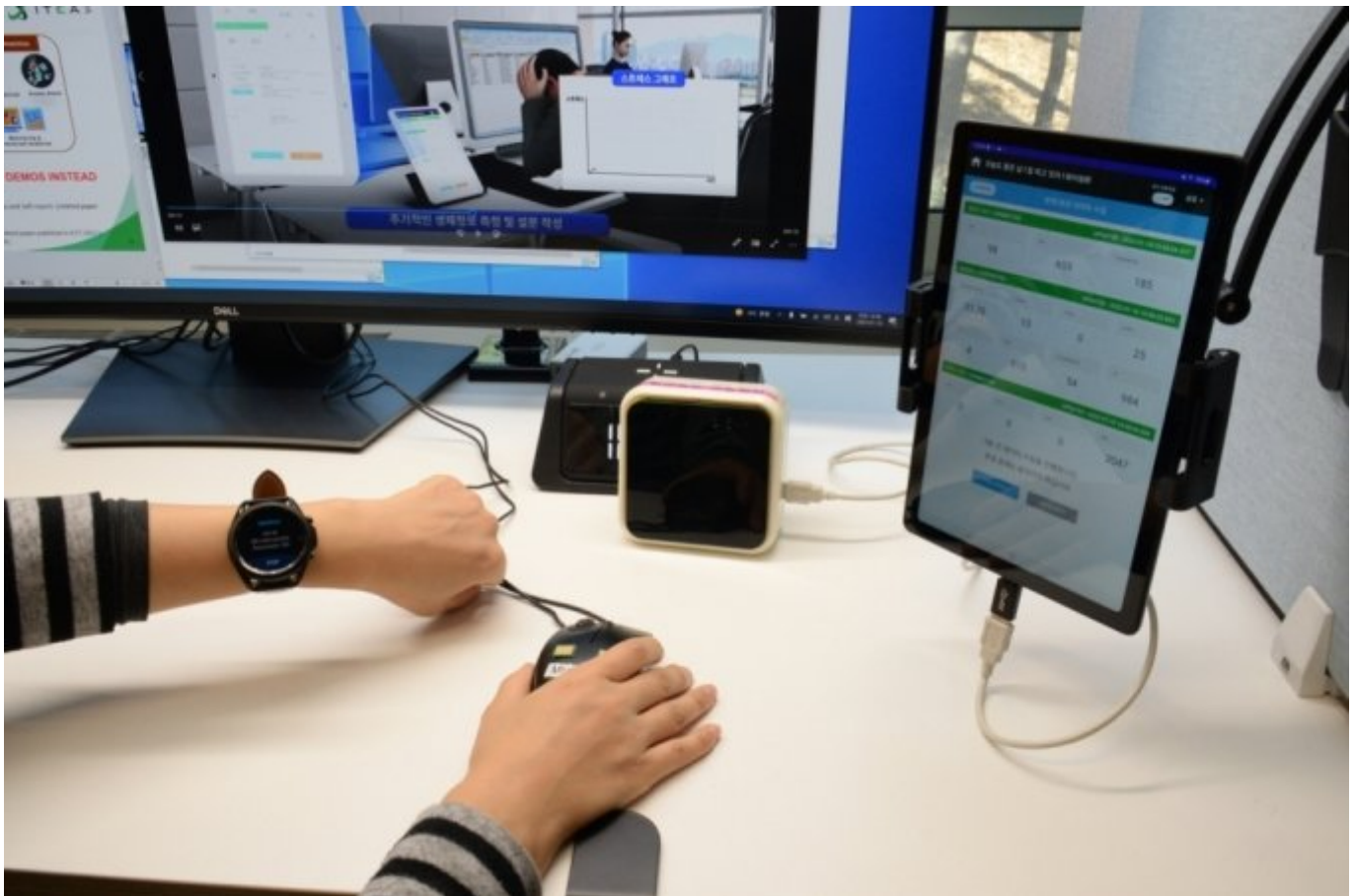


2022.02.09 09:35



의견 남기기

온도·조명·소음 측정 센서로 외부요인 평가
사람 웨어러블 기기 장착해 생체 데이터 감지
앱 통해 개인 맞춤형 해소 솔루션 제공이 목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진이 스트레스를 측정·분석과 이를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사진제공=ETRI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트레스를 측정·분석하는 인공지능(AI)을 개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개인 맞춤형 스트레스 관리 솔루션 기술을 고도화한다고 9일 밝혔다.

ETRI가 개발중인 솔루션 기술은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의 스트레스를 전(全)주기로 관리하는 기술이다. 온도·습도·소음·조명·미세먼지 등을 측정하는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사용자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전하는 생체 신호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달하는 형식이다.

기존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스트레스 관리는 맥파, 심전도, 뇌파, 피부전도도, 피부온도 등 다양한 생체신호를 수집하는 형태다. 하지만 개인의 스트레스 요인은 내적 요소뿐만 아니라 외적 요소도 있어 이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ETRI가 만든 '웰마인드'(WellMind) 앱은 웨어러블 기기뿐만 아니라 센서와 연동해 온도, 습도, 소음, 미세먼지, 조명 등 근무환경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근무시간, 업무 스케줄 등 작업정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욱 정밀하게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스트레스 측정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스트레스 정도와 선호도에 따라 차 마시기, 음악 듣기, 스트레칭 하기, 명상 등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현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VR(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기도 했다.

김현숙 ETRI 박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기술이 핵심"이라며 "현재 AI 분석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학습데이터를 축적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향후 연구진은 AI 분석 모델의 완성도를 높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최적화한 이후 활용처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이어 국내외 디지털 헬스업체 등에 기술이전해 개인 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문화권별로 다른 스트레스 정보 수집·분석, 스트레스 해소 솔루션 선호도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스페인·포르투갈·핀란드 등 유럽과 협력해 국가별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분석 중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